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doing)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being) 올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더욱 자주 깨닫게 됩니다. 일터로 나아가서 우리는 학생, 직장인, 혹은 주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들, 딸, 남편, 아내, 또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우리 각자의 관계적인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보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2008 코스타 둘째날인 화요일에는 People of the Kingdom이라는 daily theme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과 자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오전** - 주제와 관련한 조별 QT로 하루를 열게 됩니다. 시카고의 김지연 자매가 '그 피가'라는 곡으로 수화찬양을 하시게 되는 코스탄의 무대에 이어, 코스탄의 현장에서는 시애틀의 김민정 자매가 자기의 삶을 나누어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11:33-36을 본문으로 화중부 목사의 주제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3일간 김현희 목사의 책소개가 오전집회 중에 진행됩니다. 매일 3-4권씩 총 10권이 소개될 것입니다.

**오후** - 오늘은 두 개의 선택식 세미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강사님들의 조언과 안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접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녁** - 시애틀의 김진숙 목사의 간증을 들으시는 일터의 현장에 이어, 어제 저녁 귀한 말씀 전해주셨던 노진준 목사의 두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daily theme과 같은 제목 (The People of the Kingdom)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집회 후에는 숙소로 돌아가 조별 모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 알려드립니다 !!

- 1. 세미나 변경 안내**  
TH260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김수지 교수) - 화1에서 TM 세션으로 연기
- 2. 상담실 안내**  
상담신청 접수하신 분들은 상담배정표를 픽업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그룹상담이 (진로 및 이성교제) 조모임 이후 11시에 기숙사 및 Holiday Inn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저녁 전체집회 때 광고를 참조해 주세요.
- 3. CD 판매 안내**  
Edman Chapel 로비에서 강의 CD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1개에 3불입니다.
- 4. 의료실 안내**  
의료실은 전체집회 15분 전에 본부 옆에서 시작됩니다.
- 5. 자원봉사 안내**  
영아 1,2부에 코스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Daily Themes

월: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

화: People of the Kingdom

수: The Kingdom, here on earth  
목: Called to the Kingdom of God  
금: We are Servants of the Kingdom

## [사설연재]



# 이 시대에 바른 길로

“**성**공과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이 정당화되고 칭송되었고 현실을 극복해내는 이상과 물질 이상의 것들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참된 길을 가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닐까?”

코스타 2008 주제문의 일부이다. 축적된 부와 다양해진 기회 속에서 더 황폐해진 우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스타는 그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코스탄들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번 코스타 주제문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준비위원회의 방향제시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해답으로 찾으려 고민하는 이번 코스타 컨퍼런스가 해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번 코스타 컨퍼런스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대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천착하고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코스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세대를 이길 대안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스타를 진행하는 모든 주제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삼고 있다. 이번 코스타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집회가 되길 바란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통들이 균형있게 제시되는 모습을 기대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내면화에 더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코스타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면화되지 못한 이론, 깊이없는 믿음은 그 한계가 금새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의미없는 것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번 코스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더불어 우리는 코스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코스타의 주인을 알자. 코스타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스타에 참석하는 많은 강사들이, 코스타의 준비하는 주최팀도, 코스타에 참석하는 많은 코스탄들도 코스타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직 코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만이 코스타의 주인인 것이다. 열광적인 찬양과 다양한 강의들, 깊이 있는 조원들과의 영적인 교제 모두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코스타 기간 중 고요함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자.

둘째, 코스타의 역사와 핵심가치를 알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태동한 코스타 운동을 쉬지 않고 이끌어 오셨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코스타의 핵심가치는 미주뿐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복음주의 학생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선 새로운 복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말씀지향, 자원봉사, 선교지향, 연합의 정신은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영적인 유산인 것이다. 이 영적인 유산을 이번 코스타 기간에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길 바란다.

셋째, 이번 코스타의 주제의를 숙지하자. 각 해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셨고 올해는 ‘이 시대에 바른 길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제의를 깊이 내면화하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비복음적인 가치관을 과감히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코스탄들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한인 청년들의 삶을 바꾼 코스타,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 한인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교회와 청년 공동체의 갱신의 힘을 부어 주었다. 동일한 하나님이 이번 코스타 2008 컨퍼런스에서도 ‘이 시대’ ‘이 곳’의 한인청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길 기도한다. †

## 사설 연재 제목

1. 이 시대에 바른 길로
2.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3.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4.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를

[ 기획기사 2 ]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 기획기사연재

####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코스타 보이스는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획 기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기획기사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전

##### 기획기사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 십자가

##### 기획기사 3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 기획기사 4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 기획기사 5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주권 -  
하나님 나라와 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과 동일시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하나의 측면이지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집어넣을 어떤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이 그런 요소 중의 중요한 것일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일 것이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음과 부활, 이 모든 사역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의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거부,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무저항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순종, 약함과 소외됨과 부스러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 십자가의 윤리적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삶의 가르침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낸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관심일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일 것이다.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신비로운 의미에 대한 감사와 그 길을 갔던 그분의 판단과 행동이 옳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힘을 거부하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신념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묵묵히 추구하였다는 데에 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합쳐진 지배권력에 대해서 무저항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방식으로, 도덕적인 우위 속에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자신을 파괴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의 말과 비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말과 비유, 설교와 비난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의 표현이었다. 온 인류의 죄의 대속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을 이룬 것이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 강사 인터뷰 ]



노진준 목사 (볼티모어 갈보리교회)  
 >> 전설교 (월. 화)  
 1958년생, 1976년 도미  
 타우스 대학 수학과 졸업 (1982)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필라델피아) 졸업 (1985)  
 볼티모어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1992년부터 현재)  
 1987년 결혼하여 2남 1녀를 둔

1.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6년째 갈보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진준이라고 합니다. 전형적 이민 1세 교회에서 목회한 소위 1.5세 한국인입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왔고, 32년째 미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코스타에 참석했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칭 청년들을 사랑하는 정우성 목사입니다.

2. 작년에는 인디 코스타에서 섬겨주시면서 저희보다 더 어린 코스타를 만나주셨고, 올해에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두 그룹 사이에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를 느끼셨나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카고 코스타에 참여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인디코스타를 참석했는데, 젊음에서 오는 발달함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서 강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말씀을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시카고 코스타는 인디 코스타에 비해 보다 성숙한 것 같습니다. 좀더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구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코스타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두 번의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코스타들이 어떠한 부분을 깨닫고 도전받기를 기대하시나요?

코스타 지난 몇년 주제를 바라볼 때에 세계관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코스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명의 측면보다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용기와 위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지역의 청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킹덤 컨퍼런스 및 코스타에서도 자주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청년들을 향한 특별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이런 집회 가운데에서 청년들을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시나요?

최근에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했고, 이번 가을부터는 이전에 섬겼던 피바디 한인 기독교인 모임 Rejoice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편하구요.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더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5. 어제 설교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 4월 eKOSTA 좌담회에서 한국에서 입양하신 막내 아들이 겪던 언어발달장애에 대해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픔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 같아 질문 드리기 망설였지만,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과 아픔을 겪는 코스타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성공지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일부 한인 기독교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제 아들의 발달장애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정상인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설교 때에도 언급했지만 저도 그랬었구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과 목적을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력과 실력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힘이 아닌 진리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고 힘을 얻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 코스타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혹은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Back to the basic.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길 권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



# 중보기도 사역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빛진 자들  
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  
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  
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동역  
자들입니다. 믿음의 기도  
를 통하여 열매맺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으로 섬깁시다. 서로의 짐  
을 나누어 짊어집니다. 화목케  
하라신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  
시다. 성령의 능력을 흘려  
보냅니다

## KOSTA in KOSTA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KOSTA-USA 2008 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4박5일의 집회기간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랑 그리고 변화로의 결단을 체험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온 많은 간절한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적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중보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골방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지체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합심기도에 특별한 기도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맺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깁시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집니다. 화목케 하라신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을 중보기도 사역으로 초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섬김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3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 **개인 기도실** - 각자의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합니다.
2. **조별 기도실** - 조별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마련된 KOSTA 전체의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게 됩니다.
3. **릴레이 기도실** - 이번 KOSTA-USA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로 헌신하신 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수시로 방문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KOSTA-USA 2008 중보기도사역팀



## 2008 코스타 첫번째새날 이야기

6월 30일 저녁 우리 모두가 기다려오던 코스타 2008 시카고 집회  
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와 함께 시작된  
개회예배에서 올해 조직위원장으로 섬기신 노창수 목사는 마태복음  
5:11-14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인격과 희생  
과 메시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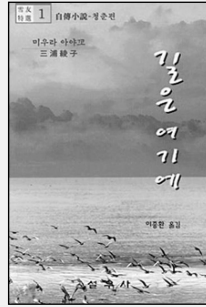
이후 노진준 목사의 저녁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의 daily theme과  
똑같은 제목인 'The Kingdom of God,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제  
목으로 마태복음 6:31-34을 풀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노진준 목사  
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안락과 형통함을 가져다 주  
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  
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는 33절의 말씀은 31절에 언급된 염려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습니다. 31절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염려를 없는 척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  
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31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33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합  
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반복해서 항상 하라는 의  
미입니다. 따라서 33절의 말씀의 의미는 실패와 고난이 우리를 힘들  
게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는 130개가 넘는 조들이 조장의 기숙사 방,  
Holiday Inn, 기숙사 라운지, 또는 강의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첫번째  
조별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남의 어색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  
라를 함께 구하는 형제, 자매라는 동질감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수양  
회 기간동안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평생 함께할 친구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 [ 김현희 목사 추천도서 ]

오전시간 전체집회에서 소개되는 김현희 목사님 추천도서의  
상세한 소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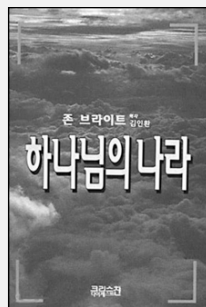
#### 길은 여기에 미우라 아야꼬, 설우사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미우라 아  
야꼬 여사의 회심기로서, 주변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받은 감명과 저  
자 자신의 치열한 진리예의 탐구가 함께 어  
우러져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감동적인 기독교 입문서다. 복음  
의 소개와 회심의 경험이 지나치게 도식적  
이고 단순화된 현대 교회에서 진지한 구도  
의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고방  
식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한 저자의  
고백은 많은 구도자들에게 신선한 길잡이  
가 될 것이다.



####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운, 두란노

구원에 대해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잘  
정리해 준 책이다. 특히 "이미, 그러나 아  
직"의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잘 설명  
해 줌으로써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해 주  
는 장점이 있다. 단순한 복음 제시의 차원  
을 넘어서서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을 제시하는 바, 좀 더 깊이 있고 논리적인  
기독교 소개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당  
한 책이다. 아울러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  
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바  
로 정립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책  
이다.



#### 하나님의 나라 존 브라이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리고 사도들의 증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설하는 성  
경신학의 걸작이다. 이 책의 장점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별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 이야  
기의 흐름을 따라 소개하는 것인데, 그림으  
로써 독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역사적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언  
약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  
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역사적 상  
황과 연결시켜 풀어주는 설명이 탁월하다.

[ 코스타 광고 ]

# 선택식 세미나 Session 1 (1:45 ~3:05 pm)

코드	제목	강사	강의실
SP 102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Min Chung 목사	Billy Graham Center 10(지하)
SP 113	울 아빠 어떻게 해? 내 친구는?	김태평 박사	Blanchard 455
SP 120	귀납적 성경연구 (이론)	하시용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105
SP 130	칭지기 신학: 세상에 내것은 하나도 없다	한규삼 목사	Breyer 207
SP 140	신앙생활	김철홍 목사	Blanchard 139
SP 150	유학생들의 선물: 화초신앙이 잡초신앙으로	최원영 교수	Memorial Student Center 302
SP 200	새로운 선교 새로운 나눔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 경제적 선교	김법석 목사	Billy Graham Center 12(지하)
SP 210	한국으로 돌아갈까? 미국에 남을까? 답은 소명!	팽동국 교수	Billy Graham Center 132
SP 220	'텍시오 디비나' 영성훈련: 성경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김미혜 목사	Billy Graham Center 138
TH 101	성경의 이해	권지현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304
TH 240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김현희 목사	Billy Graham Center 11(지하)
TH 340	기독교 or 개독교?	손희영 목사	Billy Graham Center 140
FC 110	배우자 선택, 이럴 때 록 찍어라	김향숙 원장	Billy Graham Center Barrows Auditorium
FC 112	행복한 부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고태형 목사/ 고종미 사모	Billy Graham Center 432
TM 101	직업은 많으나 부르심은 하나	강보형 목사	Blanchard 339
TM 220	그리스도인과 사회과학	장성준 교수	Breyer 111
TM 320	전략적 Career Development 어떻게 할 것인가?	장범 집사	Billy Graham Center 130
TM 330	과학, 하나님의 나라로 품고 가라	우종학 박사	Billy Graham Center 136
TM 340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미디어	이태형 소장	Blanchard 324
JJ 101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제자 훈련	윤국진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5
JJ 210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와 인생계획	장평훈 교수	Memorial Student Center 202
JJ 310	그 날까지 그 길로	유남호 박사	Memorial Student Center 204
JJ 360	20분짜리 찬양 디자인	이유정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0
JJ 370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Reaching the World Around You	Bill Saxton	Blanchard 323
M S101	예비 선교사를 위한 조언: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홍현민-홍귀주 선교사	Blanchard 322
MS 220	전문인 선교	유성남 선교사	Blanchard 222
MS 310	미국에서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되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김진숙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4
MS 330	한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전략 /김병문 교수	김병문 교수	Billy Graham Center 134

◎지도번호 건물이름

1. Blanchard Hall 2. Billy Graham Center 7. Breyer Laboratory 8. Armerding Hall 11. Memorial Student Center

## [ 코스타 서평 2 ] 교회, 공동체, 소그룹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복음주의권에서는 교회에 대한 의미에 대해 경시하는 문제가 있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일 뿐인가? 아니면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워드 스나이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적 구원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와 공동체는 개인이 구원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는 그다지 성경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 일차적인 주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공동체로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얻는 공동체적 변화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워드 스나

이더는 복음주의권의 학자로서 쉽게 경시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신앙 공동체의 존재근거가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성바오로**  
 헨리 나우엔에게 큰 정신적 영향을 미친 장 바니에의 공동체에 대해 설명한 고전. 공동체와 개인을 대립의 관계로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보는 관점이 개인의 우위 혹은 전체의 지배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장 아우들이 주인되는 라르쉬 공동체가 겪어온 어

려움 속에서 발견한 저자의 지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약함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엿보기 때 문이 아닐까.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 공동체 근거, IVP**  
 공동체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을 요약한 책으로 소그룹에서 간단하게 나누기에 좋다. 공동체의 근거, 구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내용으로 공동체에 관한 복음주의의 관점을 쉬

[ 코스타 광고 ]

# 선택식 세미나 Session 2 (3:20 ~4:40 pm)

코드	제목	강사	강의실
SP 102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Min Chung 목사	Billy Graham Center 10 (지하)
SP 109	하나님 나라 "ANY CALL" 큐티를 아시나요?	박동희 선교사	Memorial student Center 304
SP 111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중현 목사	Blanchard 455
SP 121	귀납적 성경연구 (실습)	하시용 목사	Memorial student Center 105
SP 130	청지기 신학: 세상에 내것은 하나도 없다	한규삼 목사	Breyer 207
SP 150	유학생들의 선물: 화초신앙이 잡초신앙으로	최원영 교수	Memorial student Center 302
SP 200	새로운 선교 새로운 나눔의 시작 <보이지 않는 성전 - 경제적 선교 >	김범석 목사	Billy Graham Center 12 (지하)
SP 220	'텍시오 디비나' 영성훈련: 성경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김미혜 목사	Billy Graham Center 138
SP 230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과 방향	이재천 목사	Blanchard 139
TH 340	기독교 or 개독교?	손희영 목사	Billy Graham Center 140
FC 101	바운더리와 인간관계	방춘원 집사	Billy Graham Center Barrows Auditorium
FC 111	싱글이를 벙글이로 만들자	송길원 목사	Blanchard 339
FC 112	행복한 부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고태형 목사/ 고종미 사모	Billy Graham Center 432
FC 140	신세대 자녀교육	변명혜 교수	Blanchard 222
TM 220	그리스도인과 사회과학	장성준 교수	Breyer 111
TM 320	전략적 Career Development 어떻게 할것인가?	장범 집사	Billy Graham Center 130
TM 330	과학, 하나님의 나라로 품고가라	우종학 박사	Billy Graham Center 136
TM 340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미디어	이태형 소장	Blanchard 324
JJ 200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양육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추영규 권사	Billy Graham Center 134
JJ 210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와 인생계획	장평훈 교수	Memorial student Center 202
JJ 310	그 날까지 그 길로	유남호 박사	Memorial student Center 204
JJ 340	F-2를 향한 도전과 축복	이민자 사모	Blanchard 322
JJ 360	20분짜리 찬양 디자인	이유정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0
JJ 370	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Reaching the World Around You	Bill Saxton	Blanchard 323
MS 210	은사 중심의 선교 - 당신의 다양한 전문성을 세계선교에 활용하라	정민영 선교사	Billy Graham Center 132
MS 310	미국에서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되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김진숙 목사	Billy Graham Center 254

◎지도번호 건물이름

1, Blanchard Hall 2, Billy Graham Center 7, Breyer Laboratory 8, Armerding Hall 11, Memorial Student Center

## [ 코스타 서평 2 계속 ] 교회, 공동체, 소그룹

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입문서로 사용하기에도 좋겠다.

### 찰스 쾰슨, 이것이 교회다

개인주의화된 서구의 교회, 그리고 흡사한 상황의 한국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 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저자의 경험으로 공동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한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성경적 원칙을 찾아갈 수 있다. 역시 소그룹에서 책나눔을 하기에 좋은 책이

다.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주장을 소화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한스 쾰링,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는 책이다. 특히 교회의 성격에 대한 한스 쾰링의 정리는 핵심을 찌른다. 이 두꺼운 책의 핵심은 성경에서 도출한 교회에 대한 원리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1. Members through Baptism, 2. United in the Fellowship of the Lord's Supper, 3. The Local Community and the Whol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교회의 속성을 의미하는 1. The Church

is One, 2. The Church is Catholic, 3. The Church is Holy, 4. The Church is Apostolic 이 부분은 교과서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의 모습을 띤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을만한 중요한 문장들이 도처에 적혀있어 읽히는 속도가 늦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 정도로 큰 것이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 그 웅대한 비전과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사실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